

호남권 친환경 종합물류센터 매출 1천억원 목표 달성 '온 힘'

전남도, 2027년까지 안정 생산체계·공급망과 판매망 확대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27년까지 매출액 1천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공급·유통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 먹거리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친환경농업 1번지 하먼 전남'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며 전국 최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로 성장했다.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4만 344ha로 전국(7만 5천117ha)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인증 단계별로는 유기농 2만 5천816ha(64%), 무농약 1만 4천 528ha(36%)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시군 특화품목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대도시 등에 판로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창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웠다. 1단계는 2023년까지 안정적 생산·공급체계를 구축, 자립경영으로 매출액 250억 원 달성, 2단계는 2025년까지 서울·경기 등 타 시·도 공급망 확대 및 사업 성장을 통해 500억 원 달성, 3단계는 2027년까지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대로 1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연중 안정적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계약재배 농가를 500명까지 확대, 멜론·딸기·오이 등 시군별 지역 특화품목과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을 보완해 서울·경기 등 학교급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양과·감자를 연중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으로 유통도 확대한다. 현재 도내

8개 시군, 110개 품목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도내 22개 전체 시군 140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타 시·도 학교급식의 경우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에만 15억 원 규모를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 부산 등 7개 광역시로 공급처를 늘리기로 했다.

남도장터, 농협몰·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전남 친환경농산물 배너' 등을 설치,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나선다. 한화호텔&리조트와 협약, '전남 친환경꾸러미' 상품을 입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농협안심물류센터·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친환경 전문매장인 '초록마을'에 공급 중으로, 앞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한살림 등 신규시장을 추가 발굴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전국 제1의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 및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백영 기자**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안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좌식배구 여자국가대표들이 오는 10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아패러게임 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다.

장애 딛고 혼신의 스파이크... "목표는 금메달"

좌식배구 국가대표 여자선수단 광주 광산구서 전지훈련 개최 10월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출전 "행정 관련 스포츠 지속적 관심"

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순발력과 힘을 길러 강력한 서브와 스파이크를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언니 서브 받아!" "이쪽에서 먼저 칠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안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선수들은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다는 듯 자연스럽게 경기를 이어갔다. 날아오는 공을 연신 막느라 빨강색 부어오른 팔을 쓰다듬거나 손바닥을 서로 치면서 순간 순간의 고통을 이겨냈다.

오는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출전을 앞둔 좌식배구 국가대표 여자선수들의 기합소리가 찻뿔뿔 울려 퍼졌다. 6인 1조로 꾸러진 모의훈련팀은 이날 수비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보다 정밀하게 스파이크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의 국가대표지만, 사회적 약자 신분과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이 맞물려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팀 창설이 부진해 전문선수 발굴과 육성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이 무관심에 가까운 대처로 일관하는 탓에 훈련장소 섭외에도 종종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아(45·여) 감독이 목격한 서브를 날리자 맞은편 코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선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힘이 실린 공이 네트 앞에 진을 친 수비수들 사이로 파고 들자, 주장인 한정원(52·여)씨가 몸을 날려 리시브를 했다.

그는 "스포츠가 장애인들의 일상에 젖어 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활동성은 이들의 사회적 결속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행정이 장애인들의 건강과 활동성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좌식배구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씨의 주먹에 맞은 공은 체육관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이내 네트 앞에서 스파이크를 준비하고 있던 하삼숙(56·여)씨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하씨의 강한 스파이크를 맞은 공이 네트를 가뿐히 넘어가자 김 감독이 "좋~았어"라며 응원어린 기합을 외쳤다.

그는 "스포츠가 장애인들의 일상에 젖어 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활동성은 이들의 사회적 결속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행정이 장애인들의 건강과 활동성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좌식배구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느 배구경기와 똑같지만 다른 것은 선수들이 모두 앉아서 경기하고 있다는 것. 지난 1월부터 태극기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12명의 선수들은 절단과 소아마비 등으로 몸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이다.

그러면서 "선수단 기량은 최고조로, 올해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반드시 메달권에 들어 종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인 선수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며 "아시아 4위를 넘어 세계선수권 랭크에 오를 수 있도록 선수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리를 잃었거나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이들은 무릎보호대를 차고 미끄러지듯 바닥을 쓸며 날아오는 공을 날렵하게 막았다. 선수들은 엉덩이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반칙이 선언되는 좌식배구 규칙과 장애요

서선욱 기자

GGM '캐스퍼 생산라인' 사흘 간 섰다운...중국발 부품난 원인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에어백 부품수급 차질...오늘까지 생산 중단



인기리에 판매 중인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SUV) '캐스퍼' 생산라인이 사흘 연속 멈춰섰다.

19일 현대자동차 캐스퍼 위탁 생산업체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상하이 한 달여 간 봉쇄되면서 부품수급 차질로 지난 18일 오후부터 캐스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중단 사태는 중국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 공급이 끊긴 가

운데 재고까지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GM은 20일까지 사흘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섰다운으로 하루 평균 200여 대의 캐스퍼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GM 관계자는 "현대차가 부품 공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부품 수급상황을 지켜보고 오는 21일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기독병원 코로나19 '토요 건강검진'...일반검진도 가능

직장인·학생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4시간

광주기독병원이 토요일에도 코로나19 후유증 등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광주기독병원은 평일에 코로나19 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토요일 검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내원객을 위한 일반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비롯해 저선량 흉부 CT, NK

세포 활성도 검사, 뇌MRA, 동맥경화 검사, 심전도 등 코로나 관리 검진 패키지도 운영된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후유증 치료 클리닉을 방문한 많은 환자들이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함에 따라 체계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240,839원	1,141원	1.7배
4분위	125,531원	216원	2.1배
3분위	78,147원	136원	2.7배
2분위	48,103원	267원	5.3배
1분위	26,697원	136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국회연락처 12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